

19세기말 예술양식

아르누보
미술공예운동
복식문화

사회문화적 배경

19세기말 ; 1870-1900

과학기술의 획기적인 발전>> 물질의 풍요와 자유와 평등 사상의 팽배

1890년대; 여성복식의 변혁기

‘The Gay Nineties’ 또는 ‘La Belle Epoque’

- 이전 시기의 엄격하고 윤리적인 복식규제에서 벗어나 단순하면서 기능적인 유타주의 복식이 유행
- 아르누보 스타일과 기능적인 이성적 복식 혹은 남성복에서 차용된 테일러드 수트가 등장.

현대사회의 기반이 된 19세기말

- 영국 : 빅토리아 왕조의 번영기
- 프랑스 : 7월 혁명과 2월 혁명 등을 겪으면서 왕정, 공화정, 제정을 거쳐 1870년대에는 제2공화정을 확립.
- 미국; 남북전쟁 이후 강대국으로 부상. 정치경제권 장악



1880년대 런던의 모습

과학기술 발전과 복식문화

●복식 생산 기술의 혁신

- 1851년 미국의 싱어(Singer)가 발명한 재봉틀은 여러 가지 기능을 갖춘 재봉틀로 발전
- 합성염료인 아닐린(aniline dyes) 개발.
- 샤르도네(Chardonnet)는 인조섬유를 개발. 1889년 파리 만국박람회에 선보임.
- 1891년에는 크로스(Cross)와 베반(Bevan)에 의하여 비스코스 레이온이 발명
- 직물의 색상은 그 이전보다 훨씬 밝아졌고, 다양한 소재가 소개됨.
- 패턴의 기술도 발전하여 프린세스(princess)드레스 등장.
- 1892년 보그(Vogue)지 창간 : 패션에 대한 소개가 더욱 활발
- 1893년 저드슨(WL Judson)의 지퍼 발명은 의복 스타일의 변화에 획기적인 활력소가 됨.

문화예술적 배경

- 19세기 전반; 낭만주의가 지배적인 화풍
- 19세기 후반; 리얼리즘의 영향으로 인상주의 화풍의 등장
- >> 시각적인 인상을 추상적, 주관적으로 표현
- >> 당시의 복식문화를 상세히 표현

- 제임스 티소
- 마네
- 모네
- 르누아르

문화예술적 배경

● 1. 라파엘 전파 운동(Pre-Raphaelite Brotherhood)

- 왕립예술원의 인공적 작화법과 기교주의에 반발해 정신성이 반영된 주제를 라파엘 이전, 초기 르네상스의 자연주의적 기법으로 표현>> 유태주의 복식에 영향
- >> 1890년대 티가운(tea gown)유행

● 2. 미술공예운동 (arts and crafts movement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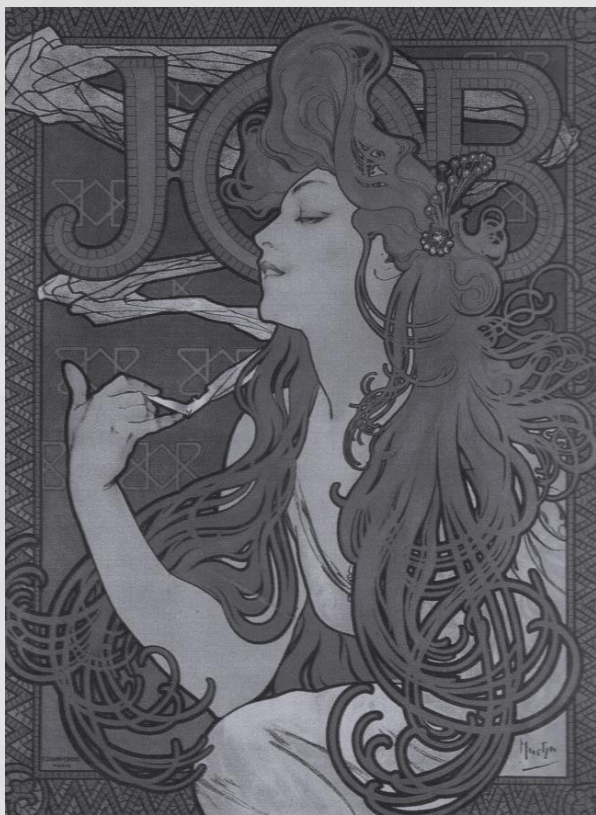
- ‘인간이 사용하는 물건을 만드는 공예가 저급한 기술의 수준이 아니라 가치 있는 예술’ 이라고 주장, 근대적 의미의 디자인 개념이 시작.
- >> 윌리엄 모리스, 길드조직, 공예교육강화

문화예술적 배경

- 아르누보
- > 세기말적 경향(decadence) 과 상징주의 미술 등의 영향으로 아르누보(art nouveau) 운동이 시작
- 독일에서는 유겐트스틸(Jugendstil)
- 이탈리아에서는 리버티(Liberty) 양식
- 대표적인 작가; 비어즐리의 포스터나 삽화



센추리 길드의 맥 머도의 저서
<렌의 도시 교회들>의 표지 (1833).



알폰스 무하, Job 회사의 광고 디 인을 실크
에 프린트한 석판화 (1896).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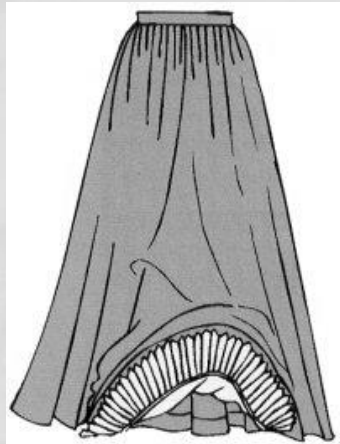
와일드의 연극 <살로메>를 위해
비어즐리가 그린 <공작새 스커트> (1894).

복식문화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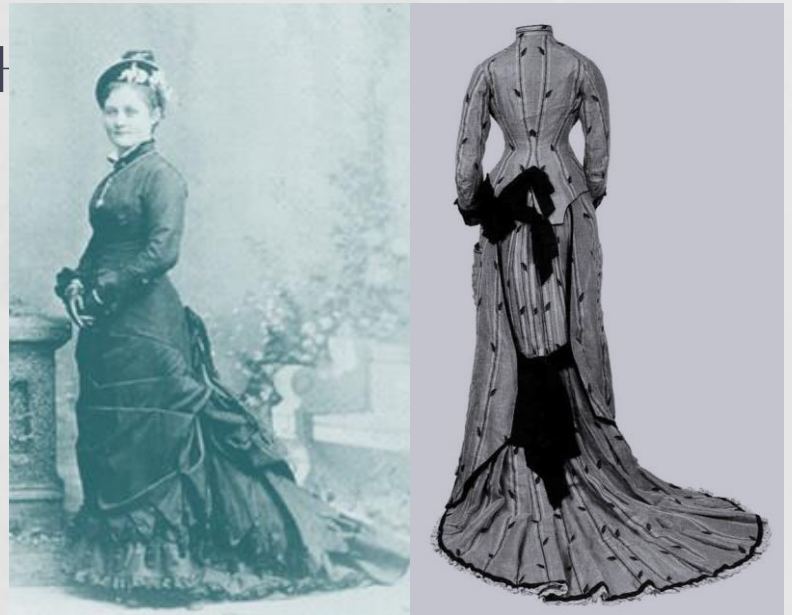
- 1. 반유행 복식운동 (anti-fashion movement) / 복식개혁운동(dress reform movement)
 - >>신체를 구속하는 제약에서 벗어나 자유롭고 편안한 복식 추구
 - 실용성>> 건강과 위생을 고려한 코르셋과 속옷류 개발
 - 심미적>> 유태주의
- 2. 이성주의 복식
 - 1851년 미국의 페미니스트 밀러(Elizabeth Miller); 당시 낭만주의 시인과 화가들이 증동풍의 복식에서 착안한 발목에 주름 잡힌 헐렁한 바지 위에 짧은 드레스나 스커트와 조끼로 구성된 스타일을 이성적인 의복 >> 블루머로 발전/ 사회주의 운동의 상징

19세기 후반 서양 여성복

- 1870년대 : 크리놀린 스커트의 부피가 뒤로 옮겨 가 버슬 실루엣을 형성.
 - 1880년대 후반 : 버슬의 부피는 최고로 과장되었다가 점차 사라짐.
 - 1890년대 : 아우어글라스 실루엣
 - 1890년대 말 : S-실루엣으로 변화



발레이외즈(balayeuse)



퀴라스 보디스(cuirass bodice) 의 버슬 드레스 1878년 등장.

19세기 말~20세기 초 복식

>>아르누보 스타일

- 김슨걸 스타일은 미국의 일러스트레이터 김슨이 그린 그림의 여성을 이상적인 여성으로 묘사
- 아우어글라스 실루엣/ S-실루엣 의상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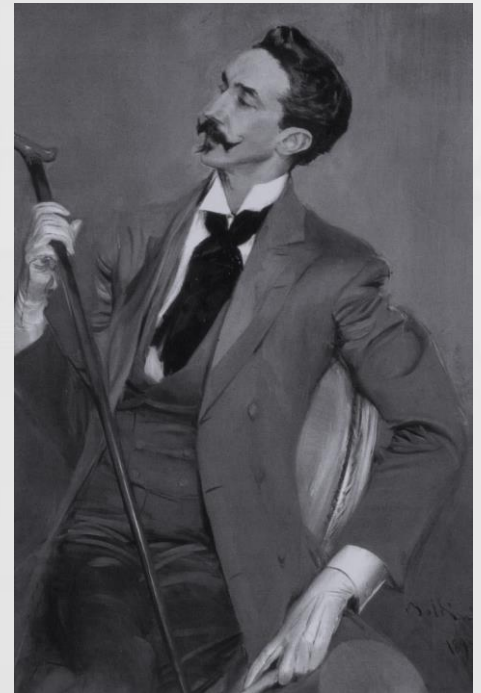
19세기 말~20세기 초 복식>> 스포츠웨어

- ◉ 여성의 사회진출로 다양한 스포츠 웨어 등장
- ◉ 1870년대 무릎길이의 수영복에서 점차 짧아져
- ◉ 1885년경 슬리브리스 수영복이 등장

- ◉ 승마복은 동일 직물로 된 재킷, 스커트, 셔츠, 톱 햇을 착용
- ◉ 재킷과 블루머를 입고 자전거를 타는 여성들이 나타남

남성복

- 공식적인 예복
 - 프록코트
 - 모닝코트
 - 테일코트
 - 색코트
 - 디토수트
-
- >> 남성복이 비교적 화려한 시기
 - 유태주의영향으로 포멀한 스타일이 유행하였고 이는 현대예복 형태로 발전



조반니 볼티니의 <로베르 드 몽 테스키우 페센자크 백작>(1897), 같은 소재로 코트, 재킷, 바지를 만든 디토수트. 파리 오르세 미술관



타キシ도



모닝 코트



색 코트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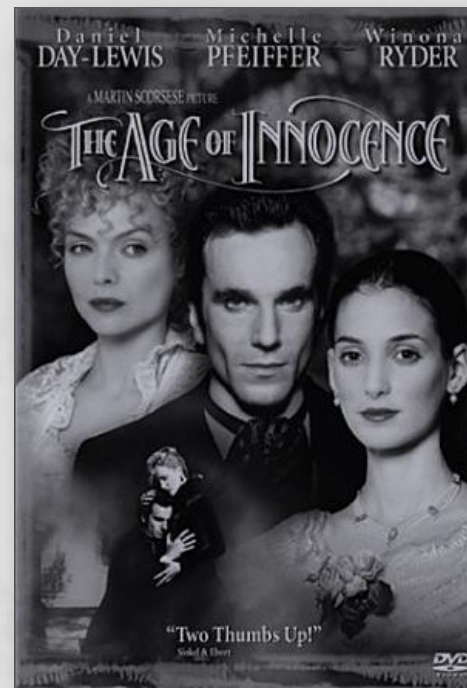
테일 코트



노퍽 코트

영화의상

- 순수의 시대, 1993
- 몰랑루즈 Moulin Rouge, 2001



참고문헌

- 서양패션멀티콘텐츠, 김민자 외, 교문사
- 서양의 복식문화와 역사, 고애란, 교문사
- 네이버 영화
<http://movie.naver.com/movie/bi/mi/photoView.nhn?code=13135>
- <http://movie.naver.com/movie/bi/mi/photoView.nhn?code=31882>